

디딤돌정신재활시설 5차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

윤명화 - 안녕하세요. 많이 추운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2023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벌써 마무리 할 때가 되었네요. 2023년 시작할 때 문제중심에서 해결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을 많이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당사자분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직원들의 노력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.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원하시는 일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제 5차 시설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
1. 2023년 9월 ~11월 사업보고

1-1. 직업재활팀 보고(보호작업, 우만세, 취업현황) - 조승희

1-2. 사회재활팀 보고(홍얼포맨, 추석행사, 2023 서울특별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, 부산캠프, “베프랑 손잡고” - 어울림체육대회, 송년회, 공감파트너) - 성나연

김태화 - 송년회 때 연극영화과에서 만든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. 지금 함께 보실까요?

이혜진 - 좋아요.

김명진 - 지금 공유에서 삭제를 한 상태라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

김태화 - 옮기는 동안 다음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순서가 2023년 예산전용 보고였지만 김명진선생님께서 영화를 옮기시는 동안 다음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

2. 2024년 사업계획 보고 - 김태화

3. 2024년 예산 보고 - 김명진

4. 2024년 자산취득계획 보고 - 김명진

5. 2023년 예산전용 보고 - 김명진

김태화 - 혹시 보고드릴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나 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?

이혜진 - 디딤돌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 같아 제가 뿌듯해요.

김덕진 - 너무 고생많으셨습니다.

김태화 - 감사합니다. 저희가 한 분을 소개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늦었네요. 오대윤선생님 육아휴직대체로 박형준선생님이 오셨습니다.

박형준 - “안녕하세요. 박형준입니다.”

윤명화 - 내년 1월까지 게시 거 같습니다.

6. 연극영화과 영화상영 “원더H” - 김명진

김덕진 -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도 좋은 추억일 듯 싶네요.

김명진 - 네. 저는 괜히 일을 벌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사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

성나연 - 당사자분들이 영화를 열정적으로 찍으셔서 좋았고 송년회 때도 다른 당사자분들도 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.

조승희 - 사회복무요원 중 영상관련하여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영화보시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.

김태화 - 영화 주인공을 맡으신 분은 영화 뿐 만 아니라 도봉장애인식개선공모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도봉구청장님께 상을 받으셨습니다.

조승희 - 최우수상을 받으셨고 이 분 이외에도 3분이 더 상을 받으셨습니다.

김덕진 - 도봉순?!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거 같은데 장애인식개선을 주제로 영화를 찍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.

윤명화 - 너무 좋은 아이디어 인 거 같습니다.

성나연 - 아이디어 제공 너무 감사해요.

조승희 - 기획으로 교수님 성함도 올려드려야 할 거 같아요.

김태화 -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혹시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해주실 말씀있으실까요?

이혜진 - 궁금한 게 있는데요. 전용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가한 거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난 건지요?

김명진 - 잉크, 레이저 등 예상보다 비용지출이 많아졌습니다.

윤명화 - 수용비 및 수수료는 다른 항목에 비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난 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다 지출을 한 후 남은 금액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

이혜진 - 아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

성나연 - 2024년에도 TF팀을 구성하여 활동을 할 예정이기는 하지만 올해와 달리 캠프에는 TF팀이 구성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. 내년에는 해외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

김태화 - 소식지를 제작하는 알리자고팀 활동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.

이혜진 - 해외캠프를 예산이 가능한가요?

윤명화 - 내년에도 올해처럼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. 이와 함께 당사자 이용비를 20,000원 인상하려고 합니다.

성나연 - 40,000원에서 20,000원을 인상하려고 합니다. 13년 동안 40,000원으로 유지하고 있었지만 불가피할 거 같아 오래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

조승희 - 해외캠프는 10분 정도 가실 거 같습니다.

성나연 - 모두 사업비로 진행하지 않고 가시는 분들의 본인 부담도 있을 거 같습니다. 가시는 당사자분들은 여권을 만드는 것도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.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.

김덕진 - 직원은 몇 명이 가나요?

성나연 - 5:1 비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 여행사와 조율한 후 정확한 액수공지하고 인원확인할 예정입니다.

이혜진 - 염두도 못 낼 거 같은데 대단하신 거 같아요.

김태화 - 감사합니다. 혹시 더 하실 말씀있으실까요?

김덕진 - 존경스럽습니다.

7. 운영위원회의 폐회선언

윤명화 :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5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쁘신 중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 건강조심하시고 다음 회의 때 뵙겠습니다.

<첨부사진>

